

「맑스」主義의 解說

朴衡秉 譯

『맑스』는 人類의 三個의 最先進國에 屬하는 十八世紀, 三個의 主要한 思想的傾向 (獨逸의 古典的 哲學, 英國의 古典的 經濟學, 佛蘭西의 社會主義)의 繼承者이며, 天才的 完成者이다. 『맑스』의 敵도 承認하는바와갓치 그의 見解가 徹底하고 또 無缺함은 『맑스』主義의 主要한 內容卽 『맑스』의 經濟學說의 解說보다 먼저 그의 世界觀一般을 簡單히라도 說明치 아니할 수 없게 하였다.

一, 哲學的唯物主義

一八四四-四五年頃, 『맑스』의 見解가 形成된새로브터 그는 唯物主義者이었다. 그는 『엘·포이엘밧하』의 部分的 陽性子이다. 그럼으로 『포이엘밧하』의 弱點은 그의 唯物主義가 徹底性及全面性에 잇서서 不充分함에 局限되어 잇다하였다. 『맑스』는 『포이엘밧하』의 全世界的, 歷史的, 『□時代的』意義를 『헤-겔』의 唯心論과의 決定的 袂別과 임의 『十八世紀에 特히 佛蘭西에 잇서서는 모든 形而上學과 鬪爭하고잇는바의』 唯物主義의 宣言과에 잇다 하였다.(『神聖家族』 『文獻的相續』) 『헤-겔』에 對하여서는-맑스가 쓴-思考過程이 (이것을 그는 「아이디아」의 名稱下에서 獨立의主體로서 變化케하는) 具體性的 創造者이다.……自己에 對하여서는 그것과 反對로 觀念이 人間的 頭腦에로 變換하여서 그래서 變形한 物質에 不過하다』(『資本論』 第一卷第二版序文) 『엔겔스』는 『맑스』의 이 唯物主義的 哲學과 全然相應하는 그의 解說을 『반주-링』中에 써잇다. 『세계의 統一性은 그 生存에 잇는 것이 아니라 그 物質性에 잇나니, 그것은……哲學과 自然科學의 長期와 또 困難한 發達에 依하여 實證하게된……運動이 物質의 生存形態이다. 何時, 何處에서라도 運動이 엮는 物質, 物質이 엮는 運動은 存在하지아니하얏스며 또 存在하기 不可能하다. 思考及認識은 무엇이나? 그것은 何處로부터 攝取하게 되는 것이냐? 함의 問題를 만일 提出한다고 하면 吾人은 그것이-人間的 頭腦의 產物인고로 人間自身은-엇던一定한 自然的 狀態及 그와 共히 發達하야오는 自然의 產物인 事를 안다. 卍라서 그 自身이 明確함과갓치 結局, 그 亦是自

然的 產物인, 人間的 頭腦의 產物은 自然爾余의 連絡과 對立하는것이아니라 도리혀 그에 相當하는것이다』 『헤-겔』은 唯心論者이였다. 卽 그에게는 吾人의 頭腦의 思考가 反映이 아니고(反映으로서 「엔겔스」는 時々로 確證하여 말하였다.) 多少具體的 事物과 過程의 抽象이며 그 뿐 아니라 事物과 그 發達은 「헤-겔」에게는 世界發生前 何處에던지 存在하여야잇는 何等의 理念의 反映이다.』 그의 著 『류드빅 · 포이엘싸-하』 中에 『엔겔스』는 自己와 『맑스』가 『포이엘싸-하』의 哲學에 對한 見解를 披瀝하였스나 그것은 『엔겔스』가 『헤-겔』, 『포이엘싸-하』及 歷史의 唯物主義的 理解問題에 對하여서 自己와 『맑스』의 一八四四-四五年頃의 舊草稿를 미리 精讀하고 印刷에 附한 것인데 그것에 『엔겔스』는 如斯히써있다. 『모든 特히 새로운 哲學上偉大한 根本問題는 思考가 生存에, 精神이 自然에, 對하는 關係, 무엇이 무엇보다 先驅하느냐? 精神이 自然에 對하느냐? 自然이 精神에 對하느냐? 의 問題이다. ……哲學은 彼等이 이 問題에 對하여 如何하게 答하느냐함에 相應하여서 二大陣營으로 分裂하였다. 精神이 自然以前에 存在하여서 그래서 그것이 世界를 創造하였다. 高斷言하는것은 ……唯心論的 陣營을 構成하였다. 同樣으로 基礎的 端緒를 自然이라고 生覺하는것은 唯物主義의 各派와 合致하였다.』

自由가 必然에 對한 關係에 關하여 『맑스』의 見解는 特히 指示하여 둘必要가 있다. 『그것을 自覺하지 못하는 동안은 盲目的 必然인고로 自由는 必然의 自覺이다』 (「엔겔스」 「反주-링」)-自然의 客觀的 法則을 承認하며 또 必然으로부터 自由까지의 辨證法的 轉換. (그와 同樣으로 不可知의 것이나 그러나 認識하기 可能한 「事物 그 自身」의 「吾人재문으로의 事物」까지의 轉換, 『事物의 本質』의 現象까지의 轉換) 『포이엘싸-하』 主義까지도 包含하여서 (俗學的 「비휴넬」-「호-타」-「모랫숯트」는 더욱히) 『구식』 唯物主義의 根本的 缺陷을 『맑스』, 『엔겔스』가 如下히 말하였다.

(가) 이런 唯物主義는 化學及生物學上 新發達을 考慮하지 아니하는 『極端으로 機會的』 이었던 事.

(나) 舊唯物主義는 非歷史的, 非辨證法的이며 (反辨證法的이었던 意味에 있어서 形而上學이였다) 徹底的 쏘는 全面的으로 發展的 見解를 取하지아니하였던 事.

(다) 그는 『人間의 本質』을 抽象적으로 理解하고(一定한 具體的 歷史的) 『결합적』 『全社會的 關係』로써 理解치아니하였다. 그런고로 世界의 『變化』가 이리 난 새에만 限하여 世界를 『解釋』 할 썬이요×××實踐的 行動의 意義를 理解하지 못하였다.

二, 辨證法

『맑스』, 『엔겔스』는 『헤-겔』의 辯證法에 있어서 發達에 關한 가장 全面的으로 豊富한 內容과 深遠한 學說을 보고 獨逸古典的 哲學의 그 偉大한 把握을 承認하였다. 彼等은 發達, 進化의 原則上 다른 모든 公式은 自然及社會에 關한 發達上 眞實한 進行(흔히 飛躍과 카타스트롭과 ××를 한다.)을 畸形的, 曲歪的, 一面的으로 보아 內容이 貧弱한 것이라 하였다.

『吾人은 「맑스」와 共히 (헤-겔主義者도 包含한 唯心論의 攪亂으로부터) 意識的 辯證法을 救出하여야서 그것을 自然의 唯物主義的 理解에로 移換함에 對하여 自己의 任務를 唯一한 사람들이라고 하기 可能하다.』 『自然은 辯證法의 反復이다. 그래서 맞치 新自然科學은 그 反復이 夫黨하게 豊富한고로 每日資料의 塊를 推積하는 自然에 關한 事件은 結局形而上學的이 아니고 辯證法的이라하는 事를 實證하고있다.』 (엔겔스)

『偉大한 根本的 思想은- 「엔겔스」가 찌고 잇는-世界가 形成되고 또 完成된 物體로부터 成立하는 것이 아니라 過程이 結合을 表現하고 잇는 것인 고로 그中 不變함과 갓치 보이는 物體와, 그와 同樣으로 頭腦로서 思考하여야서 作成하게 되는 物體의 寫眞, 理解가 發生하며 消滅하여야서 不斷의 變化狀態에 잇다고한다. - 『헤-겔』 時代로부터 이 偉大한 根本的 思想은 그 一般的 見地에 잇서서 아마 누구이던지 反駁하지 아니 할만큼 그만큼 一般的 自覺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言語上으로서 承認하는 것은 一事이며, 各々一定한 研究部門에 잇서서 個々別々の 境遇에 그것을 適用하는 것은 他事이다』

『辯證法的 哲學에 對하여서는 永久的으로 固定한것, 無條件의것, 神聖한것은 조금도 잇을 수 업다. 그것은 모든 것 우에, 모든 것 가운데에, 不可避의 沒落의 烙印을 보고, 그리고 그 以前에는 發生과 消滅, 低度로부터 高度까지의 無限한 發展上 不斷的 過程以外에는 何等의 것도 抗爭하기 不可能한것을 본다. 그 自身은 다만 이 過程의 思考的 頭腦에 關한 單純한 反映이다.』

그래서 『맑스』에 關한 辯證法은 『外界의 世界에 對함과 同樣으로 人間的 思考에 對한 運動의 一般的 法則에 關한 科學』이다. 『헤-겔』 哲學上, 이 革命的 部分을 『맑스』는 攝取하며 發展하게하였다. 辯證法的 唯物主義는 『他的 科學上에 樹立한 如何한 哲學이라도 必要로 하지아니한다.』 舊哲學으로부터서는 『思考及法則, 形式的 論理과 辯證法의 學說』이 殘存하여야있다. 그래서 『맑스』가 理解하고 『헤-겔』도 또한 그와 同樣이 었던 辯證法은 現在認識論, 『구노데오로지』(希臘語의認識論)이라 稱하는 것을 그 自體中에 包含하여야있다. 그래서 그것은 自己의 物體를 同樣으로 歷史的으로 觀察하고 認識의 發生과 發達을 研究하고 一般化하여서 無知識으로부터 有知識에로 轉換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三, 歷史의唯物主義的理解

舊唯物主義의 不徹底, 不完全, 一面的의 認識은 『맑스』로 하여곰 『社會科學과 唯物主義의 基礎를 調和케하며 그것을 이 基礎에 相應하여서 再建設』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必要를 깨닫게 함에 至하였다. 만일 唯物主義가 一般的으로 生存으로부터서의 意識을 說明하는것인고로 그것을 『反對하지아니한다하면』 唯物主義를 人類社會生活에 適用하는것은 社會的 生存으로부터서의 社會的 意識의 解釋을 要求하는것이다.

『工藝學은-「맑스」가 「資本論」 第一卷에써잇는-人間이 自然에 對한 積極의 態度, 그 生活의 直接生産過程과 共히 그 生活의 社會的 條件과 그로부터 發生하는 精神的 表現을 解剖한다.』

『맑스』는 人間社會及 그 歷史上에 擴大하여야잇는 唯物主義의 根本的 定義의 一例의 公式을 『經濟學의 批評에 對하여서』의 序文中에 如何한말을 與하였다. 『人間은 그 生活上 社會的 生産에 잇서서 一定한 必然的인, 그의 意志와는 獨立한 關係-生産關係에 슬너 들어간다. 이 生産關係는 그의 物質的 生産力의 發達上 一定한 發達에 相應한다. 이 生産關係의 結合은 社會의 經濟的 機構, 具體的 基礎를 構成하며 그 위에 社會的 意識의 一定한 形態에 相應한바의 同法的 上部構造가 建設된다. 物質的 生活의 生産手段이 生活의 社會的, 政治的, 精神的 過程一般을 條件附한다. 人間의 意識이 그 生存을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反對로 그의 社會的 生存이 그의 意識을 決定하는것이다. 社會의 物質的 生産力의 一定한 段階의 自己發展은 現存하는 生産關係와의 矛盾을 齎來하는것이다. -이것을 다만 法律的 表現으로서 말하면-그 內部에서 그것이 今日까지 展開하여야온 私有財產關係의 矛盾을 齎來하는것이다. 이 關係는 生産力發達의 形態로부터 그 制□物에 對하여 變化하는것이다. 그 새 社會變革의 時代가 到來한다. 經濟的 基礎의 變化와 共히 緩慢한 或은 急速한 變革이 尤大한 全上部構造에 發生한다. 이러한 變革을 觀察함에는 이에서 問題가 되어잇는 自然-科學的으로 正確함을 가진 生産의 經濟的 條件에 關한 物質的 變革을 各人이 이에서 이 衝突을 自覺하고 이 土臺上에서 互相鬪爭하는바의 法律的, 政治的, 宗教的, 藝術的, 又是 哲學的-約言하면 『이디오로기』의 形態로부터 恒常區別하는것이 必要하다. 個人에 關하여 그 自身이 무엇을 生覺하고 잇는가 함을 基準으로 判斷하기 不可能함과 如히 이러한 變革의 時代에 對하여서도 亦是 그 意識에 依하여서 判斷하기 不可能하다. 이와 反對로 이 意識은 物質的 生活의 矛盾, 社會的 生産力과 社會的 生産關係와의 間에 現存하는 衝突로부터 說明하는것이 必要하다. ……………

亞細亞的 古代的, 封建的 及現代의 『부르조아』의 生産手段의 一般의 特性은 經濟的 社會系統의 『푸로그레썩』의 時代를 意味하여야한다고 말할 수 있다. 『부르조아』의 生産關係는 社會的 生産過程의 最後의 對立的 形態를 構成하여야있다.……』

歷史의 唯物主義의 理解, 社會現象의 各部分에 對한 唯物主義의 擴大는 從來의 史的 理論의 二大缺陷을 除去하였다. 第一, 그것은 各人의 歷史的 行動의 觀念的 動力을 觀察함에 止할뿐이요, 그 動力이 무엇으로 因하여 生하였느냐함을 研究치아니하고, 社會的 關係의 體系上發達에 關한 客觀的 法則을 捕捉하지못하고, 또 이 關係의 根底를 物質的 生産의 段階에 잇서서 觀察하지 아니하였다. 第二, 從來의 理論은 住民大衆의 行動을 把握하지 못하였었다. 史的 唯物主義는 最初에 自然的-歷史的으로 正確함으로써 大衆의 生活上 社會的 條件과 이 條件의 變化를 研究하기 不能함을 與한다. 『맑스』以前의 『社會學者』及 歷史家는 素材의 事實의 蓄積, 斷片的 蓄集과 歷史的 過程의 部分의 一面의 描寫를 與할뿐이다. 『맑스』는 모든 對立的 傾向의 結合을 觀察하고 그것을 生活이 決定되는 條件과 社會가 相違한 階級の 生産과 結付하여서 個個의 「首位的」觀念의 選擇과 또는 그 推論에 關한 主觀主義와 放恣를 除去하며 모든 觀念의 根據와 物質的 生産力의 狀態에 對하여 相違한 모든 傾向을 解剖하여서 社會的 經濟的 系統의 發生, 發達沒落過程의 總括的 全面的 研究의 道를 指示하였다. 各人은 自身으로서 自己의 歷史를 創造한다. 그러나 各人特히 모든 사람의 集團의 原動力은 무엇으로서 因하여 決定되며 對立되는 觀念과 希望의 衝突은 무엇으로 因하여 喚起되며 人間社會의 모든 集團의 이런 모든 衝突의 結合은 무엇이나? 各人의 모든 歷史的 行動上土臺를 創造하는 物質的 生活의 客觀的 生産條件은 무엇이나?

이 條件의 發達條件은 무엇이나?- 『맑스』도 이러한 모든 것에 對하여 注意를 加하였다. 그래서 過程上 尤大한 多面性及矛盾性的의 모든 것에 對하여 唯一한 法則으로서의 歷史上科學的 研究의 途를 指示하였다.

個々의 社會에 잇서서 一員의 希望은 其他一員의 希望과 分裂하여 잇스며 社會的 生活은 矛盾으로써充滿하여 잇스며 歷史는 吾人에게 對하여 民族과 社會間及 그 內部的 鬪爭을 表示하여야잇스며 그 뿐 아니라 平和와 戰爭, 革命과 反動, 沈滯와 急速의 進歩 或은 沒落의 時代交替-이런 것은 周知하는 事實이다. 『맑스』는 이와 갖치 混亂하게 感動하는 中에서 法則을 發見케하기 可能한 指導的 先鋒 卽 階級鬪爭의 理論을 與하였다. 이 社會 又は 社會群全員의 希望上結合을 研究하는것만이 이런 希望上結果의 科學的決定을 引出하기 可하다. 그래서 對立되는 希望의 源泉은 各社會가 分裂하는 모든 階級の

生活狀態及條件에 對한 相違이다. 『存在하여야은 現在까지의 모든 歷史는- 『맑스』는 一八四八年에 쓴 (原始共產制의 歷史를 除한것인데, 『엔겔스』가 그 後에 附加하였다.)-階級鬪爭의 歷史이였다. 自由人과 奴隸, 古代羅馬의 貴族과 庶民, 地主와 農民, 頭令과 職工-約言하면 壓迫과 被壓迫은 永久하게 互相××主義로 잇서서 隱然히 或은 公然히 鬪爭을 不斷的으로 遂行하여야오나니 恒常……全社會的 建物の 再建築이던가 又は相戰하는 階級の 共側に 終하고 말었다.……滅亡한 封建社會의 胎內로부터서 出現한 『부르쑤아』社會는 階級的 矛盾이 絶滅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新階級, 新壓迫의 條件과 또 從來의 場所에서 新鬪爭形態을 남겨둘 뿐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吾人의 時代, 『부르쑤아』時代는 階級的 矛盾을 單純化함에 依하여 區別하게 된다. 社會는 더욱더 큰 二大××陣營, 甲은 乙에 對하여 反對하고 起하는 二大-즉 『부르쑤아』階級과 푸로레타리아 階級으로 分裂하여온다.

現在 『부르쑤아』階級에 對하여 對立하는 모든 階級中에 『푸로레타리아』階級만이 眞實한×××階級이다. 他의 모든 階級은 ××××가며 大工業의 發達과 共히 絶滅하여야간다. 『푸로레타리아』階級은 卽이로부터 形成되는것이다. 中間層 卽 小工業, 小商人, 手工業者, 農民 等은 모다 中間層으로서 存在를 固守하기 爲하여 『부르쑤아』階級에 對하여 反對하며 ××××있다. 그러나彼 等은 ××的이 아니고 保守的이다. 그 뿐 아니라 彼 等은 反動的인고로 歷史의 車輪을 退步식키려고한다. 만일 彼 等이 ××的이라고하면 그것은 彼 等에게는 『푸로레타리아』陣營의 移動이 目前에잇스며 彼等이 現在의 利益이 아닌 將來의 利益을 擁護하며 彼等이 自己의 見解를 放棄하고 『푸로레타리아』階級の 見解에로 立하는 境遇에 限하여있다.

『佛蘭西大革命』當時로부터 歐羅巴의 歷史는 多數의 國家에 잇서서 이 眞實한 事件의 土臺, 階級的 鬪爭을 特히 露出하였다. 그래서 佛蘭西의 王政復古의 時代로부터 多數의 歷史家(『지-에리』, 『기조-』, 『미니에-』, 『시-엘』)는 事件을 普遍化하면서 全佛蘭西歷史의 理解의 열쇠(鍵)로서의 階級鬪爭을 承認하지 아니할 수 업섯다. 그래서 新時代, 『부르쑤아』階級の 完全한 勝利의 時代, 民選諸官衛, 廣範한(만일 全般이 아니라하면)選舉權, 新聞의 大群이 每日發行되며 더욱더 有力하고 廣範한 勞動者의 同盟과 企業家同盟 等의 時代는 더욱더 判然히 (엇던 새는 大端히 平和的이며 立憲的 形態이라할 지라도)事件의 動力으로서의 階級鬪爭을 表示하고있다. 『맑스』의 만한 歷史的 著述에 잇서서는 唯物主義的 歷史家에게 燦然하고 또 深遠한 標本을 與하였스며 各個々の 階級 엇던 새에는 階級內의 各集團, 層의 狀態를 解剖하여서 何故로 또 엇지 하여서 『모든 階級鬪爭은 ××鬪爭이다.』 함을 明瞭하

게 表示하고 있다. 吾人이 引用한 斷片은 『맑스』가 歷史的 發達上, 全合成力을 測定하기 爲하여 社會的 關係의 複雜한 網, 及一階級으로의 移轉段階, 過去로부터 將來를 解剖하고 잇는 것을 描出하고있다.

『맑스』의 理論上採用과 適用이 가장 深刻히, 全面的으로, 詳細하게 되어 잇는 것은 그의 經濟學說에 잇서서이다. (次號完)

이글은 『그라나-트』 百科全書中에잇는 短編에 依합니다. ………譯者
………